

## 민주연구원, 『2026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 발간 기념 대한민국 종합격차 토론회 개최

- 사람(인구, 소득, 일자리), 자산(부동산과 주거), 인프라(건강, 교육, 대중교통)를 따라 고착화된 대한민국의 격차 축
- ‘5극3특’의 지방주도성장과 지역발전이 대한민국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 해법... 지역 중심 정책과 지방선거 정책 제안 이어져

4월 29일(수) 오후 2시,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경제·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 의원), 손명수 국회의원실과 함께 대한민국 종합격차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종합격차 토론회는 『2026년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 발간에 맞춰 대한민국의 종합격차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불평등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대한민국의 가장 복잡한 난제인 불평등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올해로 4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특히 올해 보고서는 기존의 소득·자산 불평등 분석을 넘어 인구,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등 국민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8개 영역의 지역 간 격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수화해 지역별로 취약한 지점과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대안을 모색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1부 현황과 2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소득, 부동산, 인구,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8개 영역 25개 지표를 선정,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229개 시군구(일반 행정구 제외) 단위 패널 자료를 수집해

종합격차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종합격차의 변화, 격차의 원인, 지역 간 지역 내 격차, 지역별 취약 영역을 분석했다. 2부인 쟁점에서는 중요지역으로 서울, 충남·대전·세종, 부산·울산·경남을 선정, 각 지역의 지역 내 불평등 현황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담았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종합격차는 세 가지 격차 축의 교차에 따라 틀 지워진다.** ① 사람과 경제에 관련된 **인구·소득·일자리 영역**은 서울·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부울경 해안 일부 지역 등 전통·신흥 성장·개발 축과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② 자산에 관련된 **부동산·주거 영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선명하다. ③ 정주 인프라에 관련된 **건강·교육·대중교통 접근성 영역**은 특·광역시와 비도시의 격차가 분명하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종합 격차가 이러한 세 가지 격차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며 가장 극단적으로 서울 일부 자치구는 이러한 세 격차 축의 모든 영역에서 상위에 속하는 반면 영·호남 내륙과 강원 산간 일부 지역은 세 축에서 모두 벗어나 있기에 가장 하위에 속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둘째, 수도권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보고서는 전체 격차의 17%가 광역 간 격차에서 비롯되며, 83%를 차지하는 광역 내 격차 중 60% 정도가 수도권 내의 격차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17%의 광역 간 격차, 83% 중 60%를 차지해 전체의 50%를 설명하는 수도권 내 격차까지 **수도권에 연관된 격차가 대한민국 전체 격차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도권에 과밀화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격차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해법임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점에서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과 지방주도성장**이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셋째, 부동산과 인프라 격차의 해소가 중요하다.** 보고서는 영역별 격차를 분석한 결과 소득, 인구, 일자리 등 사람과 경제 영역의 불평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부동산·주거 격차가 크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격차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격차는 22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동시에, 정주 인프라를 나타내는 건강·교육·대중교통 접근성 영역의 격차가 5년간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주면서, 부동산 격차,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대한민국 격차 완화의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 점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이재명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종합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의 생활 기준(Local Standard)을 정립해야 한다. 보고서는 2부의 쟁점을 통해 각 지역 불평등 현황을 분석했으며 재산세 공동과세 강화와 행정자원 재분배(서울), 충남 비북부권으로의 성장벨트 확대·분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충남·대전·세종), 지역 산업생태계를 활용한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과 지역인재 정주 여건 구축(부산·울산·경남) 등 지역 중심 정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역 중심 정책을 정리하면서 대한민국 격차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최저선 이상으로 각 지역의 적정한 삶의 기준을 만들고 지방정부가 이를 위한 서비스와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생활 기준'을 종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의 '기본적인 삶'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생활임금 제도의 보편화, 사회적 인프라 확대,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별 공동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공간형 사회정책 확대 등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차에 걸쳐 추진될 대한민국 종합격차 토론회는 이러한 불평등보고서의 핵심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문가 토론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연구원은 1차 토론회에 이어 부산에서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차 토론회의 주제는 부울경 종합격차 현황과 해결과제로 5월 6일(수) 오후 2시 민주연구원과 부산민주연구원 6.0 공동 주최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 [참고] 민주연구원 대한민국 종합격차 토론회 개최 일정

- (1차) (종합 및 서울) 대한민국 종합격차 현황과 진단, 해결 과제  
(4.29.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2차)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종합격차 현황과 해결 과제  
(5.6.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

## 대한민국 종합격차 토론회

### 1차 토론회

# 대한민국 종합격차 현황과 진단, 해결 과제

2026년 4월 29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진행** 강병익 정책연구실장(민주연구원)

**축사**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

**인사말** 이재영 원장(민주연구원)

문진석 의원(국회의원 연구모임 경연 대표의원)

손명수 의원(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좌장** 이재영 원장(민주연구원)

**발표** 신영민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이진수 연구위원(토지+자유연구소)

**토론** 전병유 교수(한신대학교)

정준호 교수(강원대학교)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주최** 민주연구원,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손명수 국회의원실

### 2차 토론회

# 부울경 종합격차 현황과 해결 과제

2026년 5월 6일(수)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지하1층 회의실

**진행** 장호철 사무국장(부산민주연구원6.0)

**축사** 변성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인사말** 김상운 원장(부산민주연구원6.0)

**좌장** 이재영 원장(민주연구원)

**발표** 황선웅 교수(국립부경대학교)

**토론** 김병진 소장(커넥티드위즈덤 정책연구소)

우동준 이사(부산청년들)

문다슬 교수(인제대학교)

**주최** 민주연구원, 부산민주연구원6.0